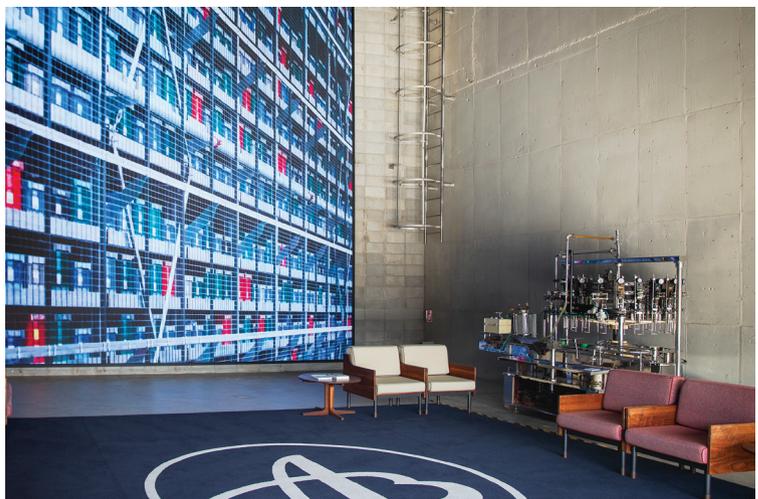




아름답게 스며드는
치유의 시간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피부 고민이 많았던 대학 시절, 설화수 방문판매원의 방문은 나를 설레게 했다. 그녀는 엄마의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었고, 각종 신제품 팩을 올려두고 한 시간 넘게 수다를 떨고 가곤 했다. 그 덕에 나도 엄마 옆에 누워 처음으로 관리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날은 얼굴에서 광이 났다. 그녀는 가방에 화장품을 잔뜩 싸 와서는 손에 쥐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샘플을 남기고 갔다. 그때부터였던가, 방문판매원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 이제는 K뷰티를 이끌어 가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한 아모레퍼시픽, 기나긴 여정의 80년 발자취를 찾아 오산으로 떠난다.

글·사진 김효정

제품 생산 철학과 스토리를 경험하는 공간 '팩토리'

아모레퍼시픽의 시작은 1932년 개성 남문 거리의 끝자락인 '어머니의 부엌'에서부터였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부엌 한편에 동백나무 씨앗을 짜서 동백기름을 만들어 팔았다. 결이 고운 베로 걸러낸 동백기름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성한 선대회장은 가내수공업으로化妆품을 만들던 어머니의 가업을 그대로 이어 1945년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창립했다. 1954년 장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기술투자로 化妆품을 연구하고 자체 기술을 확보하며 기술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이후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품질 규격을 관리하기 위해 금형 설계 파트를 보강했다. 1980년에는 기업 통합 디자인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시장경쟁력을 키웠다. 세계 최초의 인삼 化妆품인 ABC 인삼크림을 개발했고, 인삼 원료를 적용한 진생 삼미 수출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방을 피부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해 1997년 설화수를 출시했다. 이 밖에도 우리 고유의 전통 차 문화를 복원해 녹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경기도 오산 아모레퍼시픽 뷰티 파크 안에는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원료식물원, 아카이브가 있다. 일반인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투어다.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어, 방문 전 홈페이지 예약은 필수다.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정문 앞으로는 자비에 베비앙의 '더 스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파란색 조형물은 전진하는 쇼트트랙 선수처럼 세계를 향해 힘껏 뛴어 나가는 아모레퍼시픽의 진취적인 기업 이미지를 담고 있다. 팩토리 1층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커다란 미디 어월이 보인다. 방문객을 위한 녹차도 마련되어 있는데, 따뜻하게 몸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음료 서비스 존 옆으로는 팩토리 라이브러리, 프로덕트 존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오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뷰티 제품을 보고, 듣고,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다.

2층 팩토리 아카이브에서는 태평양화학공업사의 설립 초기에 사용했던 기기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 체제를 향상하려 노력해 온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3층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오산 공장의 제조·생산 공정이 한눈에 펼쳐진다. 공정의 신속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로봇이 설치된 스마트팩토리가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고, 로봇들은 온라인 주문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배송될 제품을 패키징한다. 이 밖에도 스마트 검사장비를 이용해 패키지의 품질을 검사하는 장비인 '스마트 패키징 테스트'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탐구하는 '원료식물원'

팩토리를 나와 원료식물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푸른 식물과 꽃으로 가득했을 공간이지만, 겨울철이라 아쉽게도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도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원과 아담한 온실이 마련되어 있어 초록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작은 온실 안에는 고사리과 식물이 웅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금목서와 은목서가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7월에 문을 연 원료식물원은 식물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또 미래 식물자원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보존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 설화수의 원료인 인삼, 감초, 작약을 비롯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많은 식물종을 만나볼 수 있다. 총 16개 주제 공간에 1,620여 종의 식



물이 전시되어 있다. 아모레퍼시픽 시원에는 머릿기름을 짜던 동백나무와 차나무를 비롯해 모란과 작약,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다. 한방약초원에는 허수오, 백도라지, 감초, 현삼 등 100여 종의 약초가 식재되어 있다. 곡류원에는 쌀, 콩, 팥, 들깨, 녹두, 땅콩 등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 이런 작물도 여러 기능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소개한다.

전시갤러리로 들어서면, 우거진 이끼정원이 넓게 펼쳐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반대편으로는 원료식물원에서 직접 수집한 식물을 가져와서 말리고, 종자를 채집하고 전시해 놓은 공간이 보인다. 공간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세밀화 작가와 협업해 아모레퍼시픽 원료식물원의 세밀화를 제작 중이라고 한다. 전시갤러리에서 나와 커다란 연못을 보며 자작나무 길을 걷는다. 가까운 거리에 전시온실이 자리한다. 한국 남부 수종과 아열대 기후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붉은 동백꽃이 활짝 피어 마음을 사로잡았다.





info.

위치 경기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37

개관시간 10:00~16:00

관람예약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홈페이지
tour.amorepacific.com

문의 031-8047-1481
amorefactory@amorepacific.com

아모레퍼시픽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아카이브'

전시온실과 암석원 사이로 난 계단을 오르면,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가 있다. 이곳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인 서성한 선대회장 탄생 100년을 맞아 <아모레퍼시픽 서성한 100년 | 1924-2024>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서면,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보인다. 1전시실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당대 트렌드를 이끌었던 아모레 퍼시픽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전시실에서는 서성한 선대회장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볼 수 있다. 그는 '기술과 정성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창조해 인류에 공헌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했다. 어머니로부터 품질이 최고라는 것을 배웠고, 인재를 찾고 인재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공간은 국내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3전시실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1958년 우리나라 기업 사외보의 효시인 미용 전문지 <화장계>를 창간하고, 1963년 <난초>, 1972년 <향장>으로 제호를 바꿔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미용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여성들에게 올바른 미용 지식을 보급하며 화장 문화를 이끌어 왔다. 4전시실에는 1964년 장업계 최초 CF를 비롯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광고 포스터를 관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뷰티 산업의 시작과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이곳은 단순히 뷰티 산업의 공간을 넘어, 치유와 힐링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 그곳으로 가보자. 🐾

